

영광,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 원 확보

영광군은 전남도 시책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영광군에서는 올해 총 92개의 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마을에서는 벽화그리기, 꽃길 조성, 주민 쉼터 조성, 마을 환경개선 등 각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다양한 마을 특화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 주도의 수평적, 상향식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군 추진단을 3단계(마을·읍면·군로) 구성했으며, 여기에 건설과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시환경과 ‘깨끗한 영광

만들기’ 사업을 연계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영광군은 전년도와 달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 으뜸마을로 백수읍 천기마을, 군남면 장고마을, 불갑면 맹자마을 총 3개 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생각하는 영광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며,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관산읍, 이웃돕기 성금 기탁 줄이어

장흥군 관산읍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김희(고마1)님의 50만 원 기탁을 시작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삼태(신선마트대표), 김주훈(축경1구)님이 100만 원씩을 기탁했다.

또한 올해로 5년째 기탁을 이어 오고 있는 관산중학교 33회 동창회에서 성금 1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현물(라면 등)을 기탁했으며, 회원분들이 함께 기탁식에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관산중학교 33회 동창회장 최재중

은 “고향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추상이 관산읍장은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매년 잊지 않고 성금을 기탁해 오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기탁 받은 성금과 물품은 지역 내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 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적립되어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19~21일 방문 접수... 떡갈비·전통주 등 18종

담양군이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19일부터 21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담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고, 서류 접수까지 통신 판매업 신고를 마친 업체여야 한다.

모집 대상 품목은 18종으로, △쌀 △한우 △떡갈비 △전통주 △한과 △쌀엿 △장류 △죽순 △방울토마토 △도마토 △벨론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단감 △죽세공품 △차류(대잎차 등) △누룽지 △담양사랑상품권 △관광·문화상품이다.

군은 판매 실적,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안정적 공급체계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18개 품목의 답례품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담양군청 참여소통실대의협력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답례품 업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담양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나주,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 지원 다각화

지역화폐 10%할인연장... 전통시장·위생업소 시설개선

창업·운영자금 융자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등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 어려워진 지역 상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경영안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체감형 종합대책을 수립,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성을 도모하는데 힘써왔다.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소상공인 창업·운영자금 융자 지원,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 직·간접적 금융지

원을 비롯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도모했다.

시는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4개 업체의 대출액 이차보전에 8400만 원을, 창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8개 업체에 3억5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를 기존 9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올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11월 말 기준 1181억

원 규모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증가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인 ‘떡갈비’ 운영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11월 기준 관내 음식점 전체 8.2%인 373개소가 가맹점으로 입점했으며 지속적인 업소 방문을 통해 공공배달앱 이용 혜택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먹거리 관광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 28개소에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입식테이블 전환, 바닥·화장실 보수, 도색·도배 등 시설개선 자금의 50%(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골목 상가와 더불어 민생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남평5일시장, 영산포농물시장에 각각 5억6000만원과 4억2700만 원을 투입해 LED조명설치, 점포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년에도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화순, 아름다운 화순관광 사진 51점 선정·전시

박지연 씨 출품작 ‘천불천탑의 겨울’ 금상 차지

구북구 화순군수가 제5회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회에 참석해 화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준 동호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갤러리에서 ‘제5회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사진 공모 시상식’이 열렸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순지부(지부장 임근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모 시상식에는 전국에서 289점의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펼쳤다.

화순8경, 화순의 관광지·문화유산, 국화향연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5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금상은 눈 덮인 운주사의 풍안에 안겨있는 불상을 연출한 박지연

씨의 ‘천불천탑의 겨울’이 차지했다.

은상은 김수연·김동진 씨가, 동상에는 김은하·홍성현·박정은 씨가 출품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내년에는 화순고인돌유적지에서 사계절 꽃축제

가 열리는 등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관광명소가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순에 많은 관심을 가지주시고, 아름다운 화순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삼서면 소룡2리·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 대상

장성군이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에서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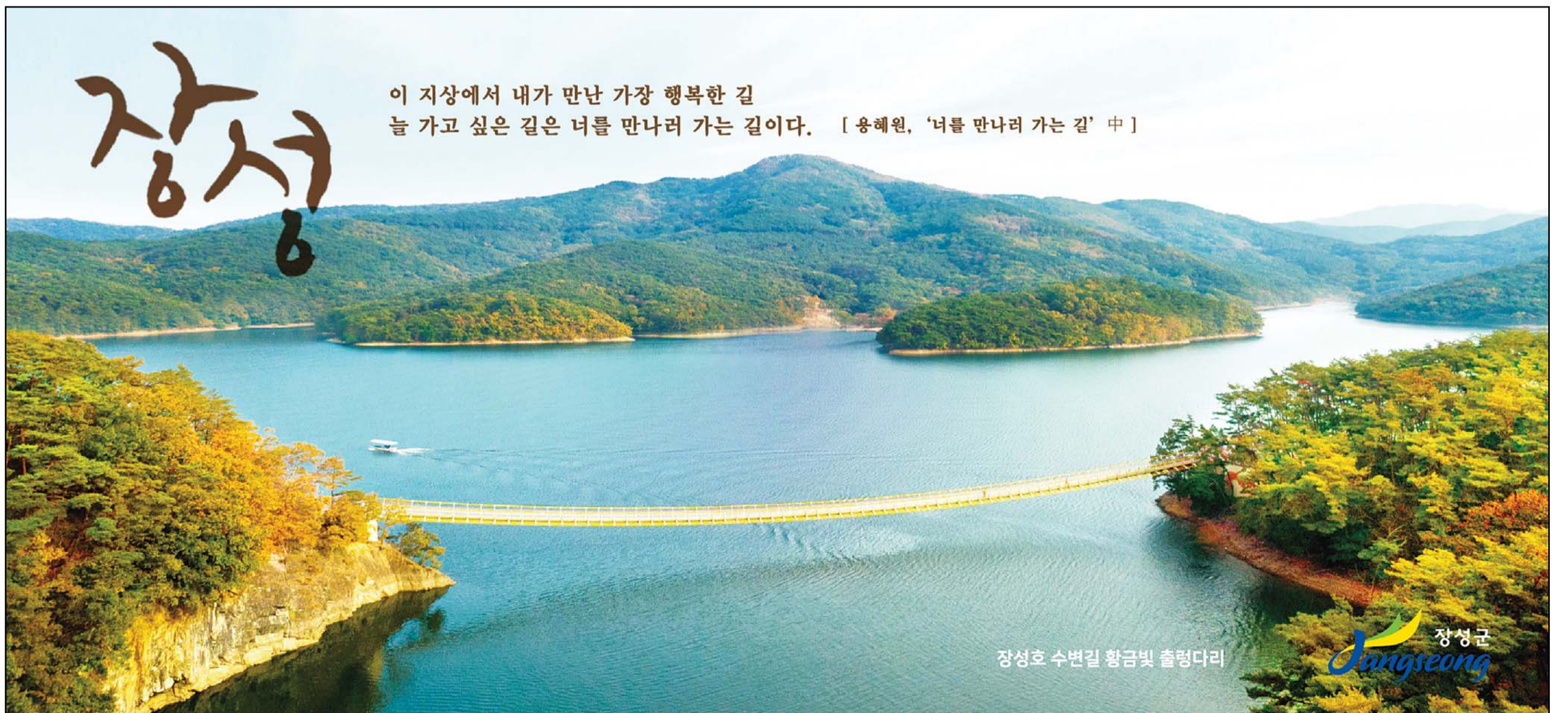
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로 규모는 645필지(38만 5851㎡)다. 장성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면, 전라남도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지적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장성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용혜원, '너를 만나러 가는 길' 中]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 출렁다리

